

현대차-포스코, 미래 신사업 맞손… 2차전지·철강 등 협력

양사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관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
“지속가능한 성장 공고히 할 것”

포스코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핵심 동력인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힘을 모은다.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은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차 강남대로 사옥에서 ‘철강 및 2차전지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미래전략본부장(사장)과 한석원 현대차그룹 기획조정본부장(부사장) 등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현대차그룹은 모빌리티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글로벌 주요 시장 및 미래 신사업



현대차그룹 기획조정본부장 한석원 부사장(왼쪽)과 포스코홀딩스 미래전략본부장 이주태 사장이 21일 현대차 강남대로 사옥에서 ‘철강 및 이차전지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포스코그룹

경쟁력을 강화하고, 포스코그룹은 북미 철강 시장 진출의 새로운 교두보 마련과 함께 모빌리티용 고품질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를 공급하는 소재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스코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이 총 58억달러를 투자해 미국 루이지애나에 짓는 전기로 제철소에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전기로로는 쇠철 생산을 기존의 고로가 아닌 고온의 전기 아크를 통해 용해해 만드는 시스템

으로, 현대제철은 2029년부터 이 공장에서 270만톤 규모의 열연·냉연 강판 등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미국 주요 자동차 생산 거점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현대차 엘라바마 공장 및 기아 조지아 공장을 비롯해 미국 등의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에 고품질 자동차 강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포스코그룹은 북미 철강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 현재 포스코는 멕시코에 자동차강판 공장을 비롯해 북미 지역에 철강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은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도 손을 맞잡기로 했다.

포스코그룹은 해외 연호 및 광산에 대한 소유권·지분 투자 등을 통해 리튬 원재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외 사업장에서 전기차 배터리용 수산화리튬

및 양·음극재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통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이후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소재 개발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도 함께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포스코그룹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전동화 리더십 확보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글로벌 통상압박과 산업 패러다임 대변화 속에서 양사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 등 그룹사업 전반에 걸쳐 지속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차·기아, ‘레드 닷 어워드’ 7관왕

EV3, 제품 디자인 부문 최우수상
“차별화 모빌리티 경험 제공할 것”

현대자동차·기아가 독창적인 디자인 철학과 미래를 내다보는 영감의 조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현대차·기아는 21일 ‘2025 레드 닷 어워드: 제품 디자인’에서 최우수상 1개와 본상 6개 등 7관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레드 닷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로, 매년 제품 디자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콘셉트 부문으로 나뉘어 우수 디자인을 선정한다.

기아 EV3는 이번에 발표된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현대차 아이오닉9와 디 올 뉴 팔리세이드, 스마트 택시 표시등,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 이피트(E-pit) 초고속 충전기,



2025 레드 닷 어워드 최우수상 ‘EV3’

픽셀 비상 방지 앤 커터 등 6개 제품이 본상을 수상했다.

기아는 올해 EV3 외에도 2022년 EV6, 2024년 EV9으로 동일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본상을 받은 현대차의 스마트 택시 표시등은 기존 택시 표시등과 운행 상태 표시등을 하나로 통합해 루프 중앙이 아닌 B필러 위쪽의 루프 몰딩에 장착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의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는 직관적 기능을 담은 간소한 디자인으로, 픽셀 비상 방지 앤 커터는 네 개의 픽셀이 조합된 디자인이 인정받았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현대차·기아의 디자인 철학과 미래에 대한 영감이 응집된 결과”라며 “뛰어난 디자인 역량을 통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텀블러 세척기’ 신시장 개척

마이컵 출시… B2B 사업 영역 확장

LG전자는 텀블러 세척기 ‘마이컵(MyCup)’을 출시하고 B2B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마이컵은 카페, 사무실 등에서 일회용 컵 대신 간편하고 깨끗하게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해주는 제품이다.

마이컵은 360°로 회전하는 세척날개와 65℃ 고압수로 텀블러 내·외부 및 뚜껑을 동시에 세척할 수 있다. 글로벌 인증기관인 ‘TUV 라인란드’ 실험 결과 표준 코스 진행 후 대장균, 리스테리아, 살모넬라균 등 유해균 3종이 99.999%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의 폭은 23cm로 좁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어 뛰어난 공간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

LG전자는 B2B 구독 서비스와 3개월마다 전문 케어 매니저를 통해 제품을 관리하는 전용 관리 앱도 함께 선보였다. 마이컵의 3년 구독 계약 기준 월 구독료는 9만 1900원이다.

LG전자는 스타벅스코리아와 손잡



LG전자 모델이 마이컵으로 텀블러를 세척하는 모습.

고 연내 전국 2000여 개 모든 스타벅스 매장에 마이컵을 순차 설치할 예정이다. 또 최근 경상남도 및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일회용 컵 없는 공공기관 실현을 위한 대화용 컵 사용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향은 LG전자 HSCX담당은 “식기 세척기로 쌓아온 세척·건조 기술력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마이컵으로 텀블러 사용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며 “새로운 B2B 신사업을 통해 구독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미라클래스’ 국내 공급

LG전자가 차세대 상영관용 시네마 LED ‘LG 미라클래스’를 통해 차원이 다른 영화 관람경험을 선사하며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의 리더십을 강화한다.

LG전자는 메가박스와 협업체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점에 차세대 상영관용 시네마 LED ‘LG 미라클래스’를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2개 상영관에 LG 미라클래스를 설치해 ‘메가 LED’ 특별한 운영을 시작했고, 이달 말까지 총 3개로 늘린다. 서울 광진구에 문을 여는 메가박스 구의 이스트폴점 등에도 LG 미라클래스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오승진 MS마케팅담당은 “LG 미라클래스를 통해 경이로운 관람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에어컨 등 구독케어 사업 강화

‘AI 사전 케어 알림’ 서비스

삼성전자가 고객 사용 편의성과 프리미엄 가치 확대를 위한 서비스 차별화 전략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21일 구독 중인 가전제품에 대한 이상 징후 발견 시 고객에게 전화로 안내하고 방문 수리 접수까지 해주는 ‘AI 사전 케어 알림’ 서비스로 가전 구독 케어 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AI 사전 케어 알림’은 AI가 원격진단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가전제품의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사용자에게 푸시 알림을 발송한 후 진단 내용을 유선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원격진단 시스템은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제품에만 가동된다.

삼성전자서비스 전문 상담사가 진행

하는 ‘AI 사전 케어 알림’은 AI 진단 내용 설명, 기기 상태 확인, 방문 수리 예약까지 지원해 준다. 시간이 부족한 고객은 번거롭게 직접 AS를 접수할 필요가 없어 더욱 유용하다. 또 제품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AI 사전 케어 알림’은 구독 대상 제품 중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로봇청소기, 에어드레서 등 10개 품목에 도입됐다. 에어컨 냉매 부족 예상, 냉장실 이상 고온 감지, 세탁기 통신 모듈 점검 등 24개의 다양한 증상을 진단할 수 있다.

‘AI 사전 케어 알림’ 서비스는 구독케어 서비스 가입 고객 대상으로 별도 요금 없이 제공된다. /양성운 기자

두산퓨얼셀, ‘에너지자원 유연화’ 기술 고도화

남부발전-두산에너지빌리티 업무협약

두산퓨얼셀은 세종시에 위치한 신세종빛드림본부에서 한국남부발전 신세종빛드림본부, 두산에너지빌리티와 ‘에너지자원 유연화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세종빛드림본부 열병합발전소에 두산퓨얼셀과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보유한 기술 및 제품을 접목해 발전소 종합효율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적인 발전소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4년 6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세종빛드림본부 열병합발전소는 액

화천연가스(LNG)를 주연료로 하여 전기 630MW(가스터빈 420MW, 증기터빈 210MW), 열 340Gcal/h를 생산할 수 있으며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증기터빈을 공급한 바 있다.

3사는 기술협약을 통해 최대 40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해 최적의 종합효율을 낼 수 있는 열병합발전(열·전력 병행) 개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자동발전제어(AGC) 운전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협의체 구성, 지속적인 협업체 관계 유지 등으로 향후 열병합발전소에 해당 기술을 접목한 사업모델 개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